

신안 갯벌천일염, 브랜드 위상 높인다

이물질 저감시설 구축·예산 확보 등 논의 유통구조 개선 등 가격 안정화 주력

신안군은 6일 천일염 산업이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랍사르습지 및 슬로시티 등 국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5대 갯벌중 하나에 속하는 곳으로 신안 갯벌천일염은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

군에 따르면 세계 식염 생산량 7천800만 t 중에서 우리처럼 갯벌에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갯벌천일염은 47만 t 밖에 생산되지 않으며, 그 중 50%인 23만 t을 신안군에서 생산하고 있다.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갯벌천일염은 염화나트륨이 적고, 칼륨 등 미네랄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깨끗한 생산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군에서는 프랑스 계랑드, 이태리 코마치오 소금과 더불어 세계 3대 명품 소금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브랜드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안 갯벌천일염에 함유된 풍부한 미네

랄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중약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혈관 정화, 소화촉진 뿐만 아니라 해독 및 살균 기능 등 생리현상 비중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안군에서는 이러한 천일염산업의 육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민선7기를 맞아 식품전환 10년 동안 생산 시설 기반조성에 집중해왔던 육성정책을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확보와 유통 활성화로 생산자 소득증대 도모 및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노력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5일 군수실에서 최근 천일염에서 검출되는 각종 이물질로 인한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걸림돌을 예방하고자 천일염 연구기관, 가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천일염 내 함유된 이물질 제거에 생산단계에서부터



신안군은 지난 5일 천일염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및 가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안군 제공

유통·가공 부분까지 전반에 걸쳐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저감 시설비용으로 인한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및 대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단기적으로는 고농축 함수 고압분사장치, 해수(함수 저장시설)내 순환 정수장치, 유통구조 측면에서 이물질 저감 가공라인 구축 등을 발굴해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실행가능한지 시험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대한염업조합 및 전문 연구소 등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강구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간담회에서 발굴된 저감 방안을 연내 시험 운영해, 내년 생산시기 부터는 세계적으로 가장 품질이 우수한 천일염을 생산해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영암군은 6일 농가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사례 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암군 제공

영암, 배 선별작업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자동증량선별기 투입...투입 노동력 40% 이상 줄여

영암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배 수확이 한창이다.

6일 군에 따르면 도포면 민당규 농가에서 어께동무컨설팅 참여농가 경영개선사업 우수사례 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경영기록장을 성실히 작성해 온 이 농가는 작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동일 작목 농업인들이 각자의 경영기록장을 비교·분석해 경영개선을 도모

하는 어께동무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농가경영개선 사업에서는 배 선별 작업시 투입노동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증량선별기를 투입하고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투입노동력을 40%이상 절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진도군이 2018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28일 까지 20일간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

올해 상반기 토지이용이 발생한 개별토지는 1천991필지로 공평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

하고 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8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진도=조광태 기자 ingopress@

목포, 조위상승 따른 해수침수 방지 당부

목포시가 오는 9일부터 12일(오전 1~4시)까지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가까이(조석표상 11일 최고 5.10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

대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는 차량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강진,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 나선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부당 사례 등 예방 기대

강진군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풀어주기 위해 9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업무, 자격기준 등을 정한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성을 고려해 이번 조직 개편 때 기획홍보실에 납세자 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의 납세자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은 소속 공무원 6

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혹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지방세와 법률,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처리 민원 및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운영감 기획홍보실장은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조기에 정착하여 지방세와 관련한 주민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례를 미리 예방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전원빈 기자 wonbin@

해남, 주거급여 대상자 907세대 신청

다음달부터 부양의무제 폐지...현장방문 통해 적극 발굴

해남군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를 앞두고,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해 907세대의 신규 가구를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방문 신청 뿐 아니라 읍면별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통해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20일 첫 임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수선계획에 맞춰 보수비용외 수선주기에 따라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군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현장 속으로 찾아가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달 폐지된다.

/조광태 기자 ingopress@

무안, 9월 재산세 78억6천500만원 부과

무안군(군수 김산)은 2018년도 9월 정 기본 토지, 주택본에 대한 재산세 6만7천 791건에 대해 78억6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무안군 2018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43억400만원으로 전년 132억7천400만원 대비 7.76%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세액을 절반씩 나누는 금액으로 부과했다.

납부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

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정기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되니 기한 내 자진납부를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김수형 기자 ksh@

전남도민일보
네트워크 제휴사

세상을 읽는 바른 신문

전라도일보
www.jilbo.com

미디어전남

NGTV
News Group

KJA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일요서울

경기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제주도민일보

충남도민일보